

【비평논문】

## <황해>, 혹은 만주 이미지의 역전\*

한 석 정\*\*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의 피격으로 남북한 간에 대립의 바다로 떠오른 황해는 이제 고요의 바다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하반기 출시된 영화, <황해>(나홍진)는 150만 명 정도의 흥행기록을 올리는데 그쳤으나 여러 모로 인상적인 영화이다. 출중한 연기가 있고 모국과 변방, 자본주의, 폭력과 남성성, 포스트 모더니티 등 심각한 논의거리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근대사에서 다소 고정된 만주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의의가 있다.

<황해>는 흥행에 성공한 <타짜>와 <추격자>의 분위기와 배우들이 있었으나 디테일에서 부실한 데가 두엇 있다. 할리우드 영화의 추격전<sup>1)</sup>을 방불케하는 면사장(김윤석 분), 김구남(하정우 분) 두 조선족의 부산 부두의 자동차 질주와 바다에서의 수영숨씨는 어울리지 않는다. 편집의 문제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좇아 한국에 갔다 한국인 정부에 의해 토막 살인된 것으로 알려진 구남의 처가 연길역에 귀향하는 마지막 장면은 실제이든 구남이 품었던 환각이든 사족(蛇足)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실수이다. 바로 그 앞 장면의 반전(죽은 김 교수의 청부살인이 부인과 은행원의 공모임을 암시한)은 놀라운 것인데 반전은 하나로 족하다. 마지막 장면은 처의 유골과 함께 구남의 시체가 어둡고 넘실거리는 황해에 투척되는 장면으로 끝나야 한다. 그럴 경우,

---

\* 폭력에 관한 영상에 대한 유용한 서적들을 소개한 김경현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에게 감사드린다.

\*\*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1) 근래의 명장면 중 하나는 <본 슈퍼리머시, Bourne Supremacy, 2004>의 마지막 부분, 주인공 공 멧 데이먼과 러시아 히트맨이 모스크바 시내에서 벌이는 추격전이다.

엄청난 여운을 남길 뻔했다.

그러나 화려한 연기가 있다. 무엇보다, 먹고 자고 서있거나 쭈그러 앉거나 뛰면서 두 시간 내내 화면에 맨 얼굴과 몸통을 드러내는 하정우가 지겹지 않은 것은 그가 한국사회 최하층이라 할 수 있는 조선족 노동자보다도 더한 신세, 즉 거금 6만 위안(미누라의 한국행 송출 경비)을 갚기 위해 암살자로 풀린 기구한 주인공 역을 뛰어나게 소화하기 때문이다. 개죽 같은 국밥을 후루룩 소리 내며 먹거나, 싸구려 외투를 걸친 채 편의점 안에서 핫도그를 먹는 옆 사람을 부러운 듯 쳐다보는 장면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국 배우 중에서 과연 몇 있을까? 이것은 그가 일정 기간 결핍을 거치며 연기를 다듬은, 혹은 준비된 배우임을 뜻한다. 하정우, 조승우, 바비 킴 등 요즘 연예계의 정상을 달리는 몇 사람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로부터) 재능을 이어받았으나 가난하게 큰 공통점이 있다. 뛰어난 연기나 가창력은 10대의 불우함에서 나오는 듯하다. 부유한 환경에서 커 소년 팬 취향으로 달리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꽃미남 스타들과의 중요한 차이이다.

김윤석도 하정우와 화면에서 열기가 뿜어 나오는 연기대결을 벌인다. 이것은 한국영화의 수확이다. 김윤석은 <타짜>에서 호남 사투리를, <황해>에서는 연변 사투리를 멋지게 구사한다. 800만명을 동원한 <친구>(2001)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주역 배우들의 실감나는 부산 사투리 숨씨였다. 이제 명배우가 되려면 영, 호남 사투리뿐 아니라 연변(연변) 말도 수준급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 김윤석이 <타짜>에서 큰 키를 건들거리며 줄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분은 압권이었는데 그가 <황해>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조선족 조폭들을 이끌고 인천공항에 나타날 때에는 이들이 한국을 접수하는 듯한 착각이 든다. 날뛰는 개를 도살하듯 그가 무표정하게 도끼를 쥐고 상대를 위에서 연속적으로 내려찍는 것도 명품 연기이다. 할리우드의 인상적인 잔혹물인 <양들의 침묵>(1991)에서 식인 살인자 렉터 하니발(앤서니 홉킨스 분)이 호송 경관의 머리를 조용히 친절한 얼굴로 깨부수는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독특하다. 그는 포주(추격자), 노름꾼(타짜) 역할로 이름을 알렸으니 경찰, 의

인 등 다소 제도권 내의 분위기를 풍기는 설경구보다 연기영역이 넓다.

운수회사 김사장 역을 맡은 조성하는 뛰어난 조연이다. 기독교 신자였다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마구 살인을 지시하는 위선보다도, 5% 부족한 남성(즉 가족과 재력, 애인을 갖추었으나 그 애인이 후배 김교수와 밀통하는)의 역할을 잘 해낸다. <타짜>에서 김혜수의 늙은 정보원 너구리 역을 맡았던 조상건도 훌륭한 양념이다. 그는 <마지막 황제>(Bertolucci, 1987)에서 청조(淸朝)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의 자금성(紫禁城) 유년시절에 말없이 먹물을 마시며 명령을 이행하던 늙은 환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는 영화 초입에 시퍼런 맨 머리의 안내인으로 잠시 나타나 불안감으로 떠는 한국행 중국인 밀항자들을 조용히 선창에 가둔다. 이것과 출항 후 항해에서 마주치는 큰 파도는 무언가 큰 운명이 조용히 자신을 삼킬 것이라는 예비적 징후이다.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은 밀항자들의 상륙 당시 마치 노예상인들이 불필요해진 인간 화물을 투척하듯 밀항 브로커들이 탈진한 여성을 바다에 던지는 부분과, 늙은 어부가 구남의 시체를 황해에 던지는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장면들은 묘하게도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거금을 들여 한국에 온 조선족 선원들이 비인간적인 처우에 폭발, 선상 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7명이 포함된 11명의 선원을 죽여 바다에 던진)의 이미지를 역전시킨다.

바다는 여기서 자신이 맞을 운명 이외의 뜻이 있다. 대양은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육로보다 훨씬 더 유용한 수송로라는 점 외에, 재물을 초개로 여기는 교회, 귀족, 기사, 양반의 위선이 통하지 않는 곳, 즉 재물을 취하고 간단히 거추장스런 존재들을 던져 버릴 수 있는, 폭력과 시장 메커니즘이 쉽게 결합하는 즉물성의 무대였다.<sup>2)</sup> 그리고 육운, 수운의 역사에서, 특히 자본과 노동, 정보의 원거리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시대에 인간은 “살(肉)로 이루어진 무명의 화물”의 속성이 있다.<sup>3)</sup>

2) William McNeill, 1982, *The Pursuit of Power : Technology, Armed Force,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4-105쪽.

3) John Urry, 2000, *Sociology Beyond Societies :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 Routledge, 57쪽.

<황해>는 그렇게 자본주의의 핵심 속으로 들어갔다.

<황해>는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두 남성이 검투사처럼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이는 남성 영화이다. 그러나 이 남성성은 모순적이다. 구남이나 김사장은 그 배우자나 애인이 바람을 피운, 스타일을 구긴 남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잠옷바람의 구남의 신체는 허접스럽다. 그 몸뚱아리는 청부살인, 즉 자본을 위해 봉사한다. 그것은 스파게티 웨스턴의 주인공처럼 외경이 아닌 혐오의 대상이다.<sup>4)</sup> 로마시대 노예반란을 다룬 영화, 스파르타쿠스(Spartacus, 1960)의 주인공인 커크 더글라스의 근육질 신체가 표현하는 스펙타클, 초남성(hyper-masculinity)<sup>5)</sup>과는 거리가 멀다. 카우보이 영화의 마초 역으로부터 플레이 미스트 포미(Play Misty For Me, 1971)에서 말수도 별로 없고 별 볼 일 없는 역할을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sup>6)</sup> 흑인 여가수, 흑인 운전수 등에게 당하는 르 사무라이(Le Samourai, 1960), 콜라터럴(Collateral, 2004)의 암살자 알랑 드롱이나 탐 쿠루즈처럼 <황해>의 남성은 깨어진다.

<황해>의 심각성은 만주의 이미지에 관련된 것이다. 한국 영화사에서 만주와 해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부산항의 암흑가를 배경으로 하는 <떠나가는 왼손잡이>(김효천, 1970)는 만주가 회상으로 연결되는 만주 웨스턴의 변형이다. (오늘날 한국의 50대 이상이 기억하는) 상하이 박(林, 장동휘 분)은 관동군의 금괴를 탈취하려다 동지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하얼빈 형무소에서 20년간 옥고를 치른 뒤 상하이 암흑가를 주름잡던 인물이다. 잃었던 아들의 도움으로 그는 해방후 부산의 실력자로 있던 배신자를 처단한다. 영화는 해방 전후를 부자 상봉으로, 만주-상하이-부산을 통해 잇는다. 상하이 박의 이미지는 기실 하얼빈, 신징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만주 웨스턴의 협객과, 만주국 국책영화사인 만영(만주영화협회)이 제작한 영화, <소주

4) Steve Neale, 1993, "Prologue : Masculinity as Spectacle" in Seven Cohan and Ina Rae Hak ed., *Screening the Male : Exploring Masculinities in Hollywood Cinema*, London : Routledge, 18쪽.

5) Ina Rae Hak, 1993, "Animals or Romans" in Seven Cohan and Ina Rae Hak, *Screening the Male*, 153쪽.

6) Adam Knee, 1993, "The Dialectic of Female Power and Male Hysteria in Play Misty For Me", in Seven Cohan and Ina Rae Hak, *Screening the Male*, 95쪽.

야곡>(蘇州夜曲, 1940)의 일본인 주인공에서 비롯된다.<sup>7)</sup>

<황해>는 만주의 과거 이미지를 과격하게 회전시킨다. 만주는 한국 근대사에서 어떤 이미지로 다가 왔는가? 우선, 20세기 초 이회영(李會榮) 등 우국지사들이 식솔들을 이끌고 가서 건설할 신세계, 혹은 독립운동을 도모할 망명지로 등장했다. 그 정신은 1930년대 초까지 이어져 술한 운동가들이 만주로 올라가 대한독립단,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국민회, 신민부 등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들어 활동했다.<sup>8)</sup> 그러나 만주국(1932~1945) 건국후 사정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오늘날 코리아 드라마와 정반대로 1930년대에 만주가 가난한 조선 농민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등장했다. 특히 1930년대 전반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남부지방에 술한 이재민이 나오자 식민당국은 조선인들의 대규모 만주이주를 기획, 추진했다. 그 결과 1930년대 무려 약 70만명의 조선인들이 만주로 올라갔고<sup>9)</sup> 해방 당시 재만 조선인들의 인구가 2백만에 육박했다. 뜨내기, 포주, 아편 판매인, 하급경찰, 공무원 등 별별 조선인들이 있었다.

이 사정과 무관하게 해방 이래 만주가 항일운동의 무대라는 이미지가 생산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자신을 만주의 항일 운동가 출신이라고 소개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에 기인한다. 1960년대 초까지 사실이든 아니든 만주 독립운동의 경력을 내세우면 여러 단위의 선거에서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한국전쟁 후 남북한 대치의 분단상황, 만주의 공산화 등 냉전 요인들이 만주의 기억을 통째로 날리며 이곳을 마구 그려 넣을 수 있는 백지상태, 많은 부분이 가려진 전설의 땅으로 만들었다. 또한 김일성의 만주 항일투쟁을 핵심적인 기억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 북한에 대항, 한국정부의 기억관리가 본격화되어 196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 이래 만주 독립운동이 한국 교과서에서 등장했다.<sup>10)</sup> 만주에 관한 연구도 수십년간

7) 한석경, 2009, 「만주 웨스틴과 내셔널리즘의 공간」, 『사회와 역사』84, 17~21쪽.

8) 박환, 1991, 『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 일조각.

9) 滿洲國 總務廳, 1942, 『康德7年 臨時國勢調査: 在滿洲國 日本人調査結果表, 全國編』, 422쪽.

10) 신주백, 2005, 「만주와 해방후의 기억」, 『만주연구』2, 123쪽.

거의 항일운동이라는 주제에 몰려있었다.

독립운동의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큰 공을 세운 것은 60년대 만주를 소재로 한 영화장르, 만주웨스턴이다. 이것은 근자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김지운, 2008)에 이르기까지 일반대중에 항일 내셔널리즘을 전파, 만주의 신화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만주웨스턴의 내셔널리즘 담론의 재생산은 만주근대사(대략 19세기 후반에서 1945년까지)의 단순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만주웨스턴은 이질적인 시간대의 근대사와 수십 개 민족의 단층, 별별 종류의 조선인들을 무시, 만주를 조선인 항일투사와 일본군의 양자만이 대결하는 균질적인 세계로 지정한 초월의 대변이었다. 그리고 근자에 널리 퍼진 고구려, 발해 왕조들과 관련된 고토(故土) 이미지가 있다. 이것을 촉발시킨 계기는 2002년부터 5년 예정으로 설정된 중국정부(정확히는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정부)의 국책성 연구사업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에 강력한 반발을 초래, 반중 정서가 확대되며, 그 관심은 <연개소문>, <대조영> 등 TV 대하드라마에 이어졌다.

<황해>는 중원의 제국과 맞서 싸우는 고구려, 발해 영웅들의 항전지나 일본군에 대항하는 무적 독립군의 무대가 아닌, 세계화시대에 문화적인 모국과 변방(다른 곳에 거주하는 문화 공동체, 혹은 특정 국민국가 속의 소수민족) 간의 관계라는 이슈를 던진다. 양자는 역사적으로 여러 유형이 있다. 유럽 출신으로 아프리카 일부를 건설한 이들(로디지아, 남아공화국 등), 식민시대에 대거 만주나 일본에 이주했다가 잔류한 조선족과 재일동포, 외몽고에서 내몽고로 이주한 이들, 라오스 출신이나 태국으로 이주한 라오족, 말레이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주한 말레이인 등 수많은 종류가 있다. 인구, 경제, 문화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꼭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내몽고의 몽골, 태국의 라오족, 인도네시아의 말레이인들은 모국의 동포보다 인구, 경제상 우위에 있다.<sup>11)</sup> 단절된 과거에 비해 이동성이 훨씬 강화된 세계화시대에 모국은 변

11) 인구상으로 몽골의 경우, 외몽고 거주 250만, 내몽고 거주 350만, 라오족의 경우, 라오스 거주 370만, 태국 거주 1,900만, 말레이인의 경우, 말레이 거주 840만, 인도네시아 거주 1천만 명이다. 경제, 문화적으로도 후자 범주(즉 모국 외 거주)가 우위에 있다. Robert Cribb and

방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변방의 문화공동체는 모국에 관심을 견지한다. 이른바 탈영토화된 내셔널리즘이다. 화교들의 경우, 세계의 곳곳에 흩어져 있으나 모국에 대한 긍지를 견지, 부지런히 모국에 송금도 한다.

<황해>의 모국은 동포애로써 변방의 사람들을 따듯이 맞아주는 곳이 아니다. 내셔널리즘을 해체하는 의미에서 영화는 포스트 모던적이다.<sup>12)</sup> 오늘날 인구, 경제 수준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한국과 연변자치주(중국 길림성 조선족 밀집지역)는 어떤 관계인가? 중국 개방 후 양자는 긴밀하게 자본주의적 분업관계로 접합되었다. 영화는 후자가 전자의 하급 노동력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그린다. 영화는 피살자의 엄지손가락 절단 장면, 칼과 도끼를 휘두르는 집단 살상극 등 케첩을 뿌린 듯한 잔혹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60년대 말 이래 할리우드 폭력물의 배경(자유주의의 붕괴, 페미니즘과 에스닉에 대한 백인들의 분노, 종말론적 분위기에서 거부장적 범질서의 확립 등)과 거리가 멀다.<sup>13)</sup> 그 초점은 한국 자본주의의 단계를 가리키는 ‘신체의 정치학’(즉 이윤을 위한 신체 부위, 청부살인을 이르는)이다.<sup>14)</sup>

영화 서두에 구남의 입으로 의미심장한 구절이 펼쳐진다. “한때 개뽕(개뽕. 광견병?)이 돌아서 키우던 개가 예미까지 닥치듯 물어죽이자 동네사람들이 꽤 죽였다. 불쌍해 뒷산에 묻어주니 동네사람들이 찾아내 고아먹었다 ... 요즘 다시 개뽕이 돈다.” 개뽕은 연변 사회에 불어 닥친 황금송배 혹은 자본주의적 오염일 것이다. 그 절정이 모국 사람들을 위한 청부살인이다. 구

Li Narangoa, 2004, “Orphans of Empire : Divided Peoples, Dilemmas of Identity, and Old Imperial Borders in East and Southeast Asia”,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46(1), 166~67쪽.

12) 영화의 포스트모던적 경향은 거대담론(내셔널리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의 약화 뿐 아니라, 무의미, 무목적, 무비평, 표면 그 자체의 탐닉을 이른다. Barry Keith Grant, 1999, “American Psycho/sis : The Pure Products of America Go Crazy” in Christopher Sharrett ed., *Mythologies of Violence in Postmodern Media*, Detroit :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9쪽.

13) Christopher Sharrett, 1999, “Introduction” in Christopher Sharrett, *Mythologies of Violence*, 12-15쪽.

14) Kyung Hyun Kim, 2009, “Tell the Kitchen That There’s Too Much Buchu in the Dumpling” ; Reading Park Chan-wook’s “Unknowable Oldboy” in Jinhee Choi and Mtsuyo Wada-Marciano ed., *Horror to the Extreme : Changing Boundaries in Asian Cinema*, Hong Kong :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0쪽.

남은 리들리 스콧의 명작, <블레이드 러너>(1982)에서 지구인들의 위성전쟁에 투입, 대량살상을 맡았다가 입력된 일정 시간 뒤 죽어가는 복제인간들처럼 한국사회의 최약역을 맡았다 죽는다. 수배자가 되어 60·70년대 공비들처럼 겨울 산하를 누비나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다. 북한에 생환된 공비들은 영웅 대우를 받았지만 구남은 고향에 귀환해봤자 누구 손에 의해서든 죽을 것이다. 고향에서든 모국에서든 조선족 청부살인자들은 죽을 운명이다.

연변사회에 개뱀이 나뉜다면 모국은 개뱀이 창궐한 곳이다. 김 사장처럼 한국 사업가는 이제 폭력을 사서 상대의 목숨도 앗아버린다. 그의 후배이자 동업자인 김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는 교수 신분으로 안마시술 빌딩을 여섯 채나 보유, 포주 노릇도 불사한다. 동시에 그는 부인과 그 정부인 은행원이 공모한 청부살인의 대상이 된다. 이쯤 되면 모국은 변방사람들이 꿈꾸는 모국이 아니라 물질과 자존심을 위해 남편과 후배의 죽음을 청구하는, 가족이 숫제 해체된 사회이다. 코리안 드림으로 연변사회 가족 상당수가 와해되었지만,<sup>15)</sup> 한국사회의 가족은 청부살인을 도모할 정도의 해체 수준이다.

개뱀을 포함, 개는 영화에서 중요한 은유이다. 면사장은 연변의 개장수 출신으로 그를 죽이러 온 한국의 조폭을 개잡는 도끼로 처단한다. 그는 졸개들에게 죽은 자들의 모가지는 잘라내고 몸통은 개한테 던져주라고 지시한다. 폭력배들의 운명에서 이런 비참한 운명이 있을까? 면사장은 한국에서도 졸개들과 개고기로 배를 채운 뒤 습격한 김사장 수하의 조폭들에 맞서 숫제 큰 개 뼈다귀를 무기로 사용한다. 또한 구남의 처는 한때 눈이 맞았던 수산물 도매상인에 의해 토막살인의 신세가 되었다. 영화는 온통 개판, 개의 이미지로 가득 찼다. 흥미롭게도 왕년에 개는 ‘항일운동의 무대 만주’의 담론에 소품으로 등장했다.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가서 두절된 아버지의

15) 2002년 목단강시 M 조선족 중학교 학생들 중 양친출국이 33.6%(초중), 24%(고중), 독거학생 비율은 15.2%(초중), 53%(고중)이다. 권태환, 2007, 「조선족 인구의 추세와 사회변동」 동아대 사회과학대 심포지엄 발표문, 6쪽.

행방을 두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만주에 개장사, 콩장사를 하러 가셨다”고 둘러대었다. 개는 만주의 독립운동으로부터, 욕망으로 아무나 물어뜯는 좀비판 세상의 비유로 대단한 이미지 전환이 이루어졌다.

더러 남미 출신 청부살인자들이 스페인에 올라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공유 언어가 그 중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통하는 변방은 모국의 치다꺼리를 맡는 단순한 존재일까? 다른 가능성도 있다. <황해>는 인천 공항에 입성한 조선족 깡패들-비록 한국의 60년대를 연상시킬 촌스러운 옷가지를 걸쳤지만-의 기갈을 통해 노후한 한국사회를 재생시킬 원시성도 전한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현재 무서운 속도로 진행, 수 세기 후 한국사회는 재생산이 끝날 것인데 그때 대를 이을 존재는 복제인간 뿐일까? 언어가 통하고 개를 잡아먹는 건강한 조선족이 있지 않은가?